

이른 더위에 판매 급증...에어컨 공장 풀가동

올 판매량 역대 최고기록 경신할 듯 삼성·동부대우전자 등 즐거운 비명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면서 광주 삼성전자 에어컨 공장 등이 풀가동 체제를 가동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5월부터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자 지난해 같은 폭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에어컨 주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주말 에어컨 판매량이 최성수기인 7월 평균 판매량에 육박하는 등 동기 판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전 업계에서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일 평균 판매량은

매주 증가하는 추세다. LG전자는 1~5월 휘센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00% 이상의 에어컨 판매고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제품인 전채로 7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립스틱 모양 에어컨으로 주목을 받은 캐리어에어컨도 작년 대비 2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5년 만에 다시 에어컨 시장에 뛰어든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40만~120만원인 동부대우전자의 실속형 에어컨은 별다른 광고나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하루 800대 이상 팔려나가면서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이 1만2000대를 돌파했다. 주요 업체마다 에어컨 공장을 벌써 풀가동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부터 주문이 몰리면서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주 에어컨 공장에서는 7~8월 여름철 에어컨 극성수기를 대비한 풀가동 체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폭염 때 에어컨 주문을 했으나 물량 부족으로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며 "연휴를 반납해가며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창원 에어컨 공장도 늘어나는 판매량에 야근까지 하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조만간 재고가 바닥나 주문 후 설치까지 1~2주나 걸렸던 지난해 여름과 같은 심각한 물량 부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증시 변동성 확대...저점 매수 기회

KOSPI지수가 2000선을 의미 있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주에는 이를 이끌만한 이벤트가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따라서 급주 역시도 제한적 상승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투자심리와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주 보다는 지수의 상당한 하단이 동시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주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할 때 1.970선의 지지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지수대를 전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국내 증시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연준의 출구전략 우려, 일본 장기국채 금리 급등세, 중국의 경기부진 등이 선진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선진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양상으로 중국, 한국 등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은 국가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며, 연초 이후 진행된 선진국 중심의 자금 싹쓸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의 약세 요인이었던 외국인 매도세와 엔화약세 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조정

을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주에는 엔화의 속도조절에 따른 국내 수출주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엔화 약세가 국내 기업에 주었던 부담감 완화로 반발 매수세가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엔화 약세 및 외국인의 매도세 완화 등을 감안해 자동차 및 IT, 기계 등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주요 완성업체의 특근 재계 등 단기적인 약해소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 기계업종의 경우 이머징 국가들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투자 가치화 및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2~4분기 완만한 실적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두번째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반기 경기개선 기대감을 반영한 금융과 건설, 철강 등에 대한 저가매수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광주 제조업 생산 증가세 전환

전남은 감소세 둔화...소비·수출 소폭 늘어

최근 광주지역 경기는 다소 개선된 반면, 전남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최근 경기는 제조업 생산이 증가로 전환된 가운데 수요측면에서도 대형소매점판매 등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고용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는 등 전반보다 다소 개선됐다. 3월 중 광주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월 -18.4%에서 3월 +2.4%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자동차·트레일러(-33.1% → -8.6%), 전기장비(-14.2% → -6.6%) 등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전자부품(+60.3% → +102.3%)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3월 중 광주지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가격기준, 전년동월대비)는 2월 +6.9%에서 3월 +0.6%로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3~4월 중 취업자수는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

가폭이 확대됐으며 광주지역의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1% 내외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3월 중 전남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2월, 11.5%에서 3월, 2.1%로 감소세는 크게 둔화됐다. 3월 중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가격기준, 전년동월대비)는 소폭의 감소로 전환(+14.1% → -0.9%)됐다. 전남지역의 건축착공면적(-54.0% → -40.9%) 및 건축허가면적(-25.8% → -5.2%)은 모두 감소세를 지속했다. 3월 중 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가치효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4월 중에는 석유제품, 선박수출 부진 등으로 다시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됐다. 3월 중 취업자수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크게 줄면서 개선세가 주춤했으나 2월 13만명에서 3월 3만3000명, 4월 13만2000명으로 4월중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다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농촌일손 돕기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중수)와 우리농업지킴이운동전남본부(본부장 주재범) 임직원 50여명은 24일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농협전남본부제공)

농협중앙회 경영진 4명 일괄 사퇴

농협중앙회 윤종일 전무이사과 김수경 농업경제대표이사, 최종현 상호금융대표이사, 이부근 조합감사위원장이 24일 일괄 사퇴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경영진이 선출될 때까지 남성우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응퇴한 임원 4명의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 쇄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응퇴했다"며

서 "농협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업구조 개편의 원활한 마무리와 농업인 실의사업 추진 등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경영성과 부진과 전산사고 등으로 농업인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다소 부족했다"고 밝혔다. 새 경영진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대외위원회에서 다음달 중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이유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경영 간섭을 들었다. 일각에선 이번 일괄 사퇴를 놓고 최 회장에 대한 임원진의 집단 반발이 표출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농협 측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연필뉴스

신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손명수씨 부임

신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손명수(47)씨가 부임한다.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제49대 익산국토청장에 손명수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임명됐다. 손 신임 청장은 27일 오전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손 청장은 완도 출신으로 용산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해양부 녹색미래

전략담당관, 해양정책과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부터 서울지방항공청장으로 재직해왔다. 한편 구자명 전 익산국토청장은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명예퇴직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은행 지역 인수 청신호 우리은행 분리 매각 가다

우리금융이 일괄 매각 대신 분리 매각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내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자본 대신 국내 금융지주사 등이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위원회는 지난 26일 토론회에서 우리금

용이 소유한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등을 따로 떼어 팔고 금융지주사 등을 일괄 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금융 자체를 통째로 판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회사 분

리 매각이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력한 우리금융 인수 후보인 KB금융지주 등의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서 내달 말에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연필뉴스

금호타이어 '엑스타 PS91' 출시

초고성능 타이어...상하이 국제 서킷서 첫 선

금호타이어가 하이엔드 고성능 타이어 '엑스타(ECSTA) PS91'를 선보였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 국제 서킷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열고 최고출력 500마력 이상의 고성능 차량에 최적화된 S-UHP(Super 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 '엑스타(ECSTA) PS91'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모터스포츠 기술력이



결집된 '엑스타(ECSTA) PS91'는 기존의 초고성능(UHP·Ultra High Performance) 타이어를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으로 수퍼카의 성능을 일반도로에서도 만끽할 수 있도록 접지력, 제동력, 고속 내구성, 승차감 등을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994년부터 AUTO GP, 마스터즈 F3, VLN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등 모터스포츠에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현재 모터스포츠의 정점이 되고 있는 F1의 전단계인 AUTO GP의 공식타이어로 지정되어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로또복권 (제547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7 15 22 34 39	28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838,444,45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3,803,156
3	5개 숫자 일치	1,528,018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기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ACCMA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1주년 기념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2019 Candidate City - Gwangju

박길무 시민걷기대회 준비위원장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상임의장
(사)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대외홍보위원장

“행복한 창조도시”의 완성을 위해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기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는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3년 6월 22일 (토)
 현장접수: 11:00~13:20 (걷기출발 오후2시)
 장소: **광주상무시민공원**
 참가비: **무료**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간식을 제공합니다.
 참가신청: 인터넷 접수 www.ngtv.tv

※ 기업,사회단체 홍보·봉사 부스 문의: 062-531-0857
 학생 자원봉사(봉사활동시간 부여) ngtv@ngtv.tv

시민걷기대회 준비부위원장: 김상덕, 김시권, 김재두, 이길행

11시부터 13시20분까지 현장접수 및 배번호 배포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등 식전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바랍니다.

주최 ▶ ACCMA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후원 ▶ 광주광역시 (사)광주영상미디어클럽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